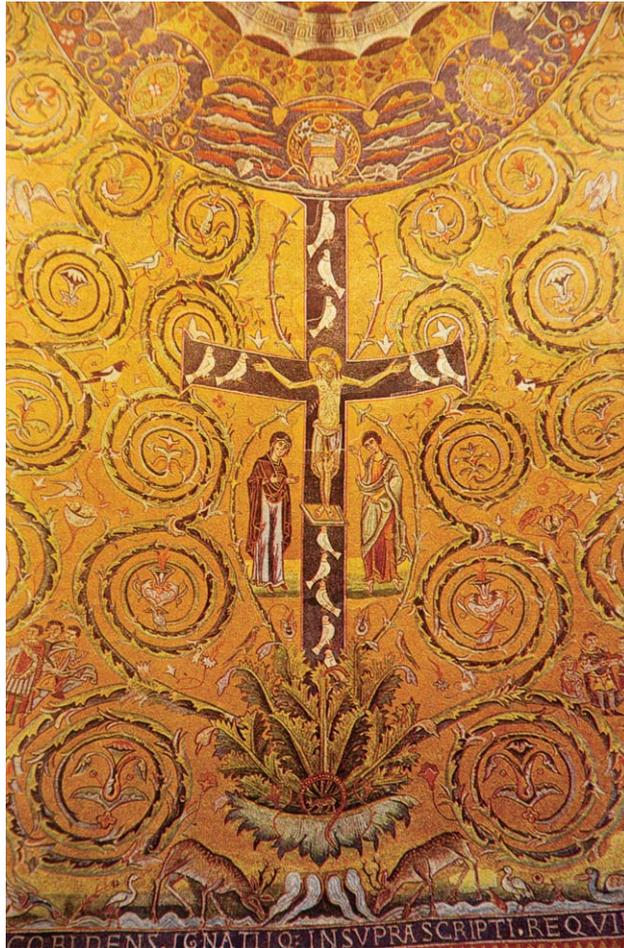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사목센터 3층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생명의 나무〉, 모자이크(부분), 12세기, 성 클레멘트 대성당, 로마, 이탈리아

성화해설

제단의 뒷면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처럼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흰 비둘기들은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님 아래에는 성모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십자가 위에는 천상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고 아래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아칸투스 잎과 포도나무넝쿨이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목을 축이고 있다.

입당송 이사 66,10-11 참조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화답송 시편 137(136),1-2,3,4-5,6(㉞6ㄱㄷ)

- ◎ 내가 만일 너를 생각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리리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노라. 거기 버드나무에 우리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하는구나. “자,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우리에게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 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 이 말라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너를 생각 않는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 위에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리리라. ◎

제2독서 에페 2,4-10

복음환호송 요한 3,16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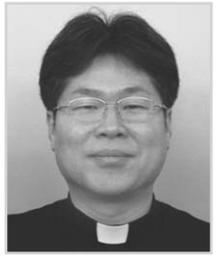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 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도다. ◎

복음 요한 3,14-21

영성체송 요한 9,11 참조

주님께서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이르셨다. 가서 씻 고 보아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십자가와 못 그리고 진주조개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얼마 전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일하는 형제님들에게 맡기고 벽에 걸린 십자가와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사를 대충 끝내 놓고 가장 넓은 벽 중앙에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벽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못. 그것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벽과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못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라 하고 벽을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인 하느님이라고 할 때 과연 못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느님과 날 연결시켜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튼튼한 못이 십자가를 벽에 단단히 고정시키듯이 하느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깊고 튼튼할수록 십자가인 나는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세상도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조개 중에 가장 값진 조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진주조개입니다. 그건 바로 조개 안에 있는 진주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고통과 시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개에게 진주가 될 수 있는 불순물인 핵을 집어넣습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모래 하나 때문에 걷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우리는 얼른 신발을 털고 다시 신습니다. 조개도 마찬가지로요. 부드러운 자신의 살에 갑자기 들어온 불순물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럴수록 불순물은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 진주조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는 몇 년이 흐른 뒤에 조개를 건져 올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조개를 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주를 꺼냅니다. “아! 참 아름답구나! 그동안 수고했

다.” 어부는 환한 얼굴로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를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주조개와 어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진주조개는 우리 자신이요, 어부는 하느님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사랑에 비해 내가 드린 것이 너무도 미약하기에 고개를 숙이고 하느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거기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진주를 꺼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견뎌내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들이 오늘 나에게 선물한 이 아름다운 진주가 커져가는 과정이었다. 네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거라” 하시지 않을까요?

하느님은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요, 은혜로운 회개의 순간임을 새기며 오늘 복음을 통해 부활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



안미경 데레사 |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연구원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날, 한동안 소식
이 두절되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보
증을 서는 바람에 집까지 다 날리고 잠적했던 친구였다. 차
한잔 마시러 오라는 친구의 청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그 친구의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의사 남편을 만나
제일 잘 살았던 친구는 남편이 노는 동안 야쿠르트 배달도
하고 봉투도 접는 등 고생을 많이 했었다. 이제 남편이 다
른 병원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게 되었다며 한시름 놓은 듯
친구는 활짝 웃었다. 친구는 남편이 첫 월급을 타오던 날
무릎을 꿇고 받았었다. 개인병원을 하던 남편이 월급쟁이
노릇을 하며 번 돈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도저히 그냥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옛날에 받던 생활비
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지만 이제까지 받던 어떤 돈보다도
가장 값지게 느껴졌다면서 친구는 눈물을 흘렸다.

별다른 고생을 해보지도 않았던 친구가 그동안 겪은 마
음고생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되었냐고 원망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남편의 힘든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
는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해 보였다.

TV를 틀면 일초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들을
보며 나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본다. 좋은 냉장고를 가져야만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차를 가져야만 능력 있는 남편을 가진
멋진 여자로 인정을 받을 것만 같다. 또한 좋은 아파트에 살
아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정말 아
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행복해지
려면 이 모든 것을 꼭 다 갖춰야만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천
국에도 커다란 냉장고와 고급 승용차, 고층 아파트 등 이 모
든 것이 다 갖춰져야만 할 것이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최면을 거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있던 재산 다 날리
고 쥐꼬리만 한 월급봉투를 가져온 남편에게 원망하고 비
난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친구의 깨끗함과 속깊음이 진정 놀랍고 또 놀랍다.

우리 눈에 빛나 보인다고 해서 다 빛이 아니다. 아니 오히
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뭔가를 얻어야만 이루어진
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돌맹이를 빵으로 만들어보려는 유혹
을 받으셨다. 하지만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며 과감하게 물리
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한 줄기 빛을 따
를 수 있는 굳센 용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청해야 할 것 같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2

낙태는 중대한 도덕적인 악이다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
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
다. 직접적 낙태, 곧 목적이거나 수단으로 인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
대한 위반이다” <가톨릭 교리서 2271항>.

낙태는 약하고 방어능력이 없고 무고한 생명을 의도적이
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회도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 이에 대한 감지 능
력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년대 이
후 경제성장의 한 방편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산아제한정책
과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조장해 온 탓에 낙태가 중대한 죄
악이라는 의식과 양심이 무뎠어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생명이 위협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낙태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
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58항 참조).



직장사목부

태릉선수촌 경당

우리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뜨거운 함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축구공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로 응원했던 시간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월드컵 4강의 신화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국민들의 응원도 한몫했겠지만 감독, 코치, 선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내가 사목하고 있는 태릉선수촌은 각 경기종목의 국가대표와 후보 선수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과 눈물을 쏟으며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곳이다. 계절에 따라 전지훈련도 하고 종목의 특성상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훈련하는 종목도 있지만 태릉선수촌에는 선수와 임직원 포함 약 300~350여 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

우리는 늘 1등에게만 박수를 치고 관심을 집중한다. 특히 매스컴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1등을 할 수는 없다. 1등은 오직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이곳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최고를 목표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훈련을 한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지만 운동이라는 게 맘먹은 대로 잘되면 다행인데 늘 그렇지 못하다. 선수들은 부상, 체력저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의 탈락,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매일 매일이 전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는 힘들고 어려운 훈련, 경쟁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위로와 안정감을 얻게 해준다.

선수촌 선수들과 임직원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구장이신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지난해 선수촌 내 경당 마련을 지시하시고 지도신부를

파견하셨다. 스포츠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음은 물론이다. 2009년 1월에는 경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다. 그동안 개신교와 불교 종교행사는 있었지만, 공식 가톨릭 경당에서 미사가 봉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후 매주 수요일에 선수들과 선수촌 직원, 봉사자 그리고 주변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들을 영적, 물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선교단 창단도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작지만 꿈은 크다. 더 많은 선수들이 미사에 참석하는 것과 선교단 창단, 천주교 신앙을 가진 스포츠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휴식처, 사랑방, 신앙의 못자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연아 스텔라 선수처럼 시합 전 성호를 긋고 시합에 임함으로써 과급되는 선교 효과도 무척 크다. 지난 2009년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에서처럼 '김연아 효과'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선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게 펼쳐야 한다. 선수촌에 기도할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경당을 찾아온 어느 신자분의 말씀. "신부님!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개신교 스포츠 선교단에서 선수들과 훈련일치가 되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가톨릭 스포츠 선교단 만들어요!"

이준호 미카엘 신부 | 직장사목부

- 미 사: 매주(수) 오후 7시30분
- 축성미사: 4월22일(수) 오후 2시 / 미사집전: 정진석 추기경
- 장 소: 태릉선수촌 체육과학연구원 내 필승체육관 2층
- 후 원: 우리은행 1005-501-405676
(재)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문 의: 727-2078 직장사목부

소식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발행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성음악에 관한 일반 지침, 미사 전례 지침, 성무일도 지침을 담은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음악 전통 수립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48쪽, 2천 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예수회	4월4일(토) 16시	예수회 본부	010-8728-1803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3월28일(토) 14시	사당5동성당	749-4596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우면동성당 여사무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20대 미혼 여교우, PC 및 회계업무 가능한 분(제출서류는 반환 안 됨)
-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본인이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함)
- 문의: 3462-5959~60(3월28일 낮 12시까지 접수)

서울대교구 가락시장성당 여사무장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미사 성가반주 가능한지 표시) / 문의: 409-3411
- 접수: 3월31일(화)까지 방문·우편 접수
- 제출서류는 반환 안 됨 / 면접은 개별 통보함

교구청 알림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곳: 3월27일(금) 10시30분, 민족화해위원회 사무실(가톨릭회관 205호) / 727-2414, 5

노인사목부 노인문화전담 정식직원 모집

- 노인문화활동 전담 / www.isenior.or.kr
- 대상: 40세 미만 교우, 레크레이션, 율동찬양 지도, 탄력 근무가능한 분 / 문의: 727-2121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4월3일(금) 16시까지 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직장사목부 '가톨릭 직장인 성가대' 단원 모집

- 대상: 가톨릭(예비자) 직장인으로서 교회음악에 관심 있는 분 / 4월30일(목)까지 접수
- 성가연습: 매월 2·4주(목) 19시30분, 명동성당 소성당 / 727-2078(www.cafe.daum/pax2007)

향심기도(9박10일 집중피정)

- 대상: 향심기도 회원(www.hyangsim.com)
- 때, 곳: 6월10일(수) 17시-19일(금) 13시,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 / 지도: 이승구 신부(회비: 38만 원)
- 문의: 010-8674-1105 사목국 향심기도회

'세계 천문의 해' 기념 '지구와 별·여름생태캠'

- 때: 1차 7월28일(화)-30일(목) 2박3일, 2차 7월30일(목)-8월1일(토) 2박3일 / 회비: 6만 원
- 곳: 코스모피아 천문대(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관리 86번지) / 727-2274, 2283 환경사목위원회
- 대상: 서울대교구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3-6학년 학생 240명(1차 120명 기준, 선착순 마감)

첫째날	입교식, 물놀이, 천체관측프로그램
둘째날	술체험, 전통놀이, 달집태우기, 천체관측 프로그램
셋째날	자연미술 프로그램, 창조질서보전 미사, 파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운동 함께해요



매일같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1.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2.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3.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4. 내 손이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5.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사랑을 나누실 분물은 020774-3488
☎ 한미은행중앙은행본부로 연락바랍니다(www.dob.or.kr)

의정등록 No.

매일같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1.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2.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3.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4. 내 손이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5.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

서울대교구는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말씀을 담은 현수막을 배포한 데 이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스티커를 서울대교구 내 각 성당과 전국 교구청에 배포했습니다. 빨간색 스티커 가운데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그린 자화상 '바보야'를 새겼고, 추기경의 마지막 말씀에 화답하는 형태로 '고맙

습니다. 사랑합니다' 문구를 담았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티커 뒷면에는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사랑을 베푸자는 의미입니다. / 구입 및 후원 문의: 727-2038

알림

모임

- 젊은이 부활 전례 피정**
· 때, 곳: 4월11일(토) 17시-12일(일),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주최) / 010-8519-3431, 053)313-3431
- 여성연합회 월례회**(문의: 778-7543)
· 미사-특강: 이재돈 신부 / 주제: 세 가지 차원의 생명
· 때, 곳: 3월24일(화) 10시,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 신약성경 통독 피정(개인 침묵피정 가능)**
· 때, 곳: 4월2일(목)-5일(일), 씨튼영성의 집(주최)
· 문의: 041)733-2992~4(www.setoncent.or.kr)
-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성3일) 전례피정**
· 때: 4월9일(목) 14시-12일(일) 13시(회비: 12만원)
·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 054)971-0722
- 영적 여정과 인간조건 특별 피정**
· 강사: 김중순 수녀 / 문의: 744-9825 씨튼 피정의 집
· 때, 곳: 4월4일(토)-5일(일), 우이동 명상의 집
- 13-A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사순 대피정**
· 강사: 이상기, 이상진 신부 / 010-6236-4250
· 때, 곳: 3월23일(월) 9시-17시, 봉천1동성당
- 원주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순절 피정**
· 때: 3월26일(목) 9시30분-17시(회비없음) / 2269-2930
· 곳: 명동성당 별관 / 강사: 최기식 신부(미사와 고백성사)
- 성체현시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 때: 4월2일(목) 10시-15시30분, 망우1동성당(주최)
· 안수와 미사(중식제공) / 문의: 437-8984
-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론은 유명강사가 하며 매주바뀜)
- 골목반 수녀원에서 보내는 사순절 주말 침묵피정**
· 대상: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젊은여성
· 때: 3월28일(토) 15시-29일(일) 16시 / 010-7101-9302
· 곳: 성골목반 외방 선교 수녀원(주최) / 회비: 1만원
- 영적성장을 위한 감성수련**
· 주제: 마음의 그림자 / 강사: 문종원 신부, 나성경, 은기순
· 때: 3월27일(금) 16시-29일(일) 15시 / 회비: 12만원
· 곳: 상지 피정의 집 / 010-3078-5249, 010-8738-2974
-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1:1 개인지도식)**
· 때: 3월30일(월)-4월8일(수) 9박10일(8일피정)
· 곳: 메리워드 교육관 (주최: 예수수도회)
· 회비: 40만원 / 문의: 010-6847-7222
- 기쁨으로 가는 유투침**
· 때, 곳: 3월28일(토) 15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326-6209, 018-255-0246 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 홈페이지(club.cyworld.com) 참조
-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2박3일 소그룹 침묵피정**
· 때: 3월25일(수)-27일(금) / 990-1004, 2004
· 예수고난회 일일 소그룹 피정: 15-20명
· 문의: 924-8627 둔암동 신학원
- 서울대교구 철야기도회 내적치유 세미나**
· 고해성사, 치유, 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 때, 곳: 4월3일-5일29일 매주(금) 22시 8주간(성 금요일 휴강), 동성고등학교 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 강사: 문종원 신부(두려움, 우울증의 치유), 정규한·정귀철·서정혁 신부, 조기연·이혜봉 회장
-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 때, 곳: 매주(수) 12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출구, 5528·5535·6512 버스환승 후 지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3월25일(수)	강제: 생명으로 가는 길 / 사순특강 강사: 배은하 신부(황성사회복지관 관장)
4월1일(수)	1주: 준비, 태아기, 유년기 / 내 일생의 치유 강사: 문종원 신부(서울성령쇄신 대표신부)

- 예수마음 배움터(일산 근교) 피정**
· 문의: 031)946-2337, 8(www.jesumaum.org)
- | | |
|------------------|---|
| 예수마음도
영성수련 피정 | 2박3일 3월27일(금)~29일(일), 4월17일(금)~19일(일) 17시30분 시작, 17시 마감
4박5일 4월27일(금)~31일(일), 5월11일(금)~15일(일) 14시 시작, 17시 마감
8박9일 3월27일(금)~4월1일(토), 4월17일(금)~21일(일) 14시 시작, 17시 마감
에너그램 4월4일(토)~5일(일), 5월23일(토)~24일(일) 15시30분 시작, 17시 마감 |
|------------------|---|

- 가정선교회 28차 가정 영성 성숙 1일 피정**
· 대상: 가정치유와 성화를 원하는 누구나(회비없음, 김밥 제공, 미사준비) / 강사: 차동엽·정원순 신부, 이현주 회장
· 때, 곳: 4월1일(수) 10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777-1773, 010-5674-8511, 011-9135-7815
-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 집전: 유용덕 신부 / 문의: 312-0662, 011-245-0121
· 때: 3월23일(월) 13시30분-17시(기도: 박용혜)
· 곳: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 / 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통한 '하느님 헌신제' 1일침묵피정**
· 대상: 성인(선착순 마감) / 주제: 하느님 헌신과 표현의 침묵(준비: 미사준비·필기도구)
· 때, 곳: 4월5일(일) 9시-17시, 마리아니스트 영성센터(주최) / 2648-7134, 010-3311-7134(회비: 1만5천원)

교육

- 전·진·상 영성사목센터 성경치유피정**
· 주제: "두려움의 치유" / 726-0710(www.jscen.or.kr)
· 때, 곳: 매일 넷째주(목) 3월26일 9시30분-16시30분
- 평화심리상담소 충분히 좋은 부모되기**
· 내용: 부모의 고정된 생각과 기대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 문의: 775-4831, 2
· 때: 3월31일(화) 오전 10시부터(8주)
-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무료 월피정**
· 주제: 죽음과 부활(강사: 정규한 신부) / 중식제공
· 때, 곳: 3월27일(금) 10시-16시, 서강대 이나시오관 강당(미사있음·개인 물컵지참) / 717-3869
- 탈리다콰센터 다솜 EAC 2급 자격과정**
· 통합적 예술테라피 전문가 교육 EAC(Expressive Art Counselor) 과정 / 742-9471, 3 탈리다콰센터
· 때: 4월6일-29일 매주(일·수) 14시-18시(4주과정)
- 엄마는 청소년전문가 57(구립서초유스센터)**
· 내용: 청소년 자녀들의 효과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엄마교실(회비: 3만5천원) / 3486-0379
· 때: 4월14일(화)-16일(목), 21일(화)-23일(목) 10시-12시(총 6회) / 홈페이지(www.scy.or.kr) 참조
- 헨델의 오라토리오와 구약성경 강좌**
· 내용: 오라토리오중 구약성경을 주제로 한 12곡을 성경공부와 함께 하는 음악강좌 / 강사: 허영환 교수
· 때: 매주(월) 12강좌 / 개강: 4월6일(월) 20시
· 곳: 트리니티스 음악원(주최) / 336-3170, 010-8722-2174
- '내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예방교육 영성강좌 제1기**
· 대상: 일반인, 학부모, 교리교사, 수도자, 교육자로서의 자질향상에 관심 있는 분 / 8828959, 010-3883-7004
· 때, 곳: 4월17일-7월10일 매주(금) 9시30분-12시30분(오전반), 18시50분-21시50분(오후반) / 총 12주간
· 곳: 유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주최) 살레시오 수녀원 내(전철 7호선 신봉역 4번 출구) / 전화접수 가능
- 성서 영적 여정 프로그램(Spiritual Journey in with the Bible)**
· 렉시오타이피나 콘터누아를 통해 하느님과 나를 알기, 주님을 향한 여정(4월11일까지 접수) / 824-4363, 5
· 교육내용: 자아인식, 기도 입문(몸기도 채득), 말씀을 통한 영적여정의 기초개념 습득(선착순 60명)
· 때: 4월23일부터 매주(목) 10시-12시30분 · 4월24일부터 매주(금) 10시-12시30분 / 회비: 사무실에 문의
· 곳: 가톨릭 성서모임(주최) 본부(혹석동 성모교육원)

-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꿈작업을 통한 자기분석: 3월25일-5월27일 매주(수) 10시-12시50분(10주)
문도2경 관리와 의사소통훈련: 4월2일-5월21일 매주(목) 10시-12시50분(8주)
전문심리치료 개인(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 부부·가족간의 갈등 등 아동·청소년·성인 심리검사(성격, 정서, 인지, 자존 등) 및 음악치료

- 매종 프로그레스(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종합심리평가 및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특정상황이나 대상을 두려워하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 성적이 낮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큰 아동, 청소년,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 및 가족 관계에 문제가 심각한 성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모-자녀 및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이 큰 가족
---------------------	---

모집

- 절두산순교성지 관리·경비·미화 직원 모집**
· 서류: 이력서 지참하여 내방 / 대상: 60세 이하
· 접수마감: 3월31일까지(전화문의 사절)
- 음성 꽃동네 인곡자애병원 간호사 모집**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
· 근무처: 충북 음성 꽃동네 인곡자애병원(주최)
· 문의: 011-9171-8325, 043)879-0301, 0326
- 가톨릭신문사 서울지사 관리팀 직원모집**
· 대상: 수도권 거주자 / 3월26일(목)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적사본 / 778-7671~3(amicite75@hanmail.net)
-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 사무원(여) 모집**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된 성실한 분(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가능한 분)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2-4(의정부교구청 별관 옆)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민신부추천서
· 접수: 3월25일(수) 18시까지 직접접수(월·금) / 전화문의 사절, 메일 문의만 받음(set@ujb.catholic.or.kr)
·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서류 반환 하지 않음)
- 아도라레 발레단 정단원·어린이 발레단 교육생 모집**
· 주최: 성바오로수도회 아도라레 발레단
· 무용실: 독림문 전철역 근처 / 010-4501-4161

아도라레 발레단 정단원 모집	발레 전공자(부전공자)
아도라레 어린이 발레단 교육생 모집	어린이 교육

미사

-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후원회 미사**
· 때: 3월25일(수) 오전 10시, 명일동 성당 / 481-2217
- 용산성당 '베다니아의 집' 한식활동위령미사**
· 때, 곳: 4월2일(목) 오후 7시30분, 베다니아의 집 앞 / 문의: 719-3301 용산성당
-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대상: 신우회 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 753-0815
· 때, 곳: 3월25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 내 소성당
- 삼성동성당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百花爛熳) 월례미사**
· 대상: 회원 및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동참할 교우
· 때, 곳: 3월25일(수) 10시, 삼성동성당 / 512-0195
- 절두산 순교성지 연영회 기도·미사**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3월27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 오기선 요센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3월26일(목) 오후3시, 명동성당 별관
- 월요 다락방기도와 미사**
· 미사: 장유성 신부(메시지 오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 때, 곳: 3월30일(일)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꽃봉헌 및 스카폴라 봉헌식 있음)
- 몸과 마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치유미사**
· 지향: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척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성수도유 예절) / 집전: 남영희 지도신부
· 때, 곳: 3월26일(목) 오후 2시-4시, 새남터성지
· 문의: 711-2507 성모성심 가나안 봉사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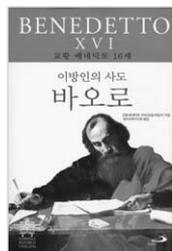
- (국내 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 문의: 764-4741~3(www.성가정입양원)
· 주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 명동성당 부활절 집중 관공성사 안내**
· 때: 4월4일(토)-4월7일(화) / 문의: 774-1784

4월4일(토)	13시-21시	4월5일(일)	10시-21시
4월6일(월)	4월7일(화)	13시-21시	

-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

교황 베네딕토 16세 지음 | 성바오로수도회 옮김 | 성바오로 | 96쪽 | 8천 원

성 바오로에게 봉헌된 특별 회년에 교황님과 함께 바오로 해를 살기 위한 안내서이다. 성년 공표 때 행한 교황님의 연설과 사도 바오로에 대한 프로필,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선옥의 마흔 살 고백

공선옥 지음 | 생활성서 | 200쪽 | 1만 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 홀로 키우는 세 아이와의 이야기, 오랜 숙원이었던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된 이야기까지 저자가 마흔 언저리에서 일기처럼 써 내려간 잔잔하고 애뜻한 일상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



교부들의 성경 주해 X (이사야서 1~39장)

한국교부학연구회 편찬 | 정영한 옮김 | 분도출판사 | 456쪽 | 3만8천 원

신·구약 성경에 대한 교부들의 사상과 신앙을 그 정수만 뽑아 현대어로 옮겨 엮은 책이다. 현대인들이 고대 그리스도교 시대에 활동한 교부들의 핵심 사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침묵

엔도 슈사쿠 지음 | 김윤성 옮김 | 바오로딸 | 332쪽 | 9천 원

'다시 읽고 싶은 명작 시리즈' 두 번째 권으로 일본이 낳은 최고 현대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대표 작품이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소설적 재미를 곁들여 진지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모호하신 하느님

토마스 뢰머 지음 | 권유현 옮김 | 성서외함께 | 176쪽 | 9천 원
구약성경의 하느님은 대홍수를 일으켜 창조물을 쓸어 넣으시고, 이집트의 만아들과 만배들을 모조리 죽이시는 등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온화하신 모습과는 다르다. 폭력적으로 묘사되는 구약성경의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내 아들이 걸어난 십자가의 길

이상각 지음 | 변순득 그림 | 남양성모성지 | 84쪽 | 3천 원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데 도움되는 안내서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도와준다. 성모님께서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느끼셨을 고통과 슬픔들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묘사됐다.



미래를 여는 가정 공동체

강원숙 외 지음 | 기틀리대학교 출판부 편저 | 204쪽 | 1만3천 원 | 구입문의: 740-9718

부부 정체성의 변화와 더불어 부부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착안하여 열린 가족의 형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전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등에 대해 조명했다.



필론 입문

케네스 쉥크 지음 | 송혜경 옮김 | 바오로딸 | 340쪽 | 1만8천5백 원

예수, 바오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필론'과 그의 작품에 관한 안내서이다. 필론의 작품과 사상의 기초를 소개하는 한편, 다른 분야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론 전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뤘다.



성경에 나타난 가르멜 영성

제임스 맥카프리 OCD 지음 | 서한규 옮김 | 계세마니 | 182쪽 | 9천5백 원 | 구입문의: 985-1379

성경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영성서적이다. 가르멜 영성을 성경 속에서 찾도록 하고, 가르멜에서 공경하는 성인들의 신앙과 기도 활동을 성경내용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복을 부르는 마음

곽승룡 지음 | 마음나무 | 232쪽 | 1만1천 원

저자는 인간이 원래 지녔던 복된 마음을 찾는 길이 곧 복을 불러오는 마음이라고 전한다. 이 책은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며 용서하고 사랑을 선물하는 복을 부르는 마음먹기의 방법을 총 6장으로 구성했다. / 구입문의: 762-1193

김옥순 수녀 '십자가의 길' 원화 전시회
· 문의: 776-2941 명동 바오로딸 서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부활에 이르는 사순절 걸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원화를 전시한다. 3월23일(월)~4월8일(수), 명동 바오로딸 서원에서 전시하며, 4월1일(수)~4일(토) 오후 3시~4시에는 저자 사인회가 있다. 깊이 있는 색감과 묵상이 담긴 그림이 성모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도록 이끌어 준다.

로비 라카토시 앙상블 내한공연

- 입장권: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 티켓 예매: 1544-1555 인터파크, 1588-7890 티켓링크(인터넷 예매 가능)

집시 바이올린의 제왕, 헝가리 집시 음악의 수호자, 재즈 즉흥연주자 등으로 불리는 '로비 라카토시'의 내한공연이 3월29일(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다. 집시 음악의 정열과 개성을 살리면서도 클래식적 깊이와 견고함을 유지하여 완전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1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2인까지 할인가능).